

## 운동선수의 단독 불안정성 SLAP 병변의 임상적 결과 - Throwing과 Non-Throwing 선수의 비교-

Clinical Outcome of Isolated Unstable SLAP Lesions in Athletes

-A Comparison of Throwing and Non-Throwing Athletes-

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용걸 · 임찬택 · 하정한

### 목 적

Throwing 선수와 Non-throwing 선수에서의 단독 불안정성 SLAP 병변에 있어서 관절경적 고정술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.

### 대상 및 방법

1996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단독 불안정성 SLAP 병변으로 관절경적 고정술을 시행한 30명 33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의 평균연령은 25세(17~43)였고, 성별은 전례에서 남자였다. 우수수의 이환이 22례, 비우수수의 이환이 11례이었으며, 양측성의 병변은 3명이었다. 추시기간은 평균 33개월(25~67)이었다. Throwing 선수군의 경우 야구선수가 12명(14례) 이었고 이중 투수가 10명(11례)이었으며, 창던지기 선수가 1명이었다. Non-throwing 선수군의 경우 체조선수가 11명(12례)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선수가 3명, 레슬링 선수가 2명, 역도선수가 1명이었다.

### 결 과

주관적 통증척도 및 불안정성 척도는 술전 각각 평균 5.7과 1.4에서 1.3과 0.1로 호전되었다. 최종 추시시 UCLA점수는 평균 32.3점 이었다. Throwing 선수군의 경우 평균 33.9로 최우수수는 10례(67%), 양호는 5례(33%)였고, Non-throwing 선수군의 경우 평균 31.7로 최우수, 양호, 불량은 각각 5례(28%), 10례(55%), 3례(17%)였으며 두 군간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(P=0.011). 수술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각각 93%와 83%였으며 재수술은 1례에서 이차 관절경 검사 및 변연절제술을 실시하였다. 수술 후 술전 상태의 운동선수 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경우는 85%와 71% 였다.

### 결 론

운동선수에 있어서의 단독 SLAP 병변의 관절경적 고정술의 결과는 우수하였고, Throwing 선수는 Non-throwing 선수의 경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운동선수 생활 복귀는 77%에 가능하였다.